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기념 삼국유사 대제전 개막

7월 6일(음력 6월 11일)은 우리민족의 영원한 스승 일연 스님이 이 땅에 오신지 800돌이 되는 날. 우리가 해마다 일연 스님의 탄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스님이 남긴 <삼국유사> 5권이 민족분열의 성서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7월 6일 일연 스님의 800번째 탄신일을 맞아 삼국유사 집필지인 군위 인각사에서 현공다례제 봉행과 함께 탄생800주년 기념 '삼국유사대제전'의 막이 올랐다.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현공 다례제에는 은해사 주지 법담 스님과 박영인 군위군수를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일연

8월 1일까지 27일간 진행 20~21일 국제학술대회 보각국사 비·성지 복원도

스님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삼국유사>를 통해 보여준 민족 사랑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1년 일연삼국유사문화제로 시작된 성사의 위업 추모 행사가 탄생 800돌을 맞아 삼국유사대제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가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거듭나게 됐다"며,

"삼국유사문화대제전을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보각국사 비를 복원 불안하고 삼국유사를 집필한 성지 복원봉사에 전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해사 주지 법담 스님은 성탄사에서 "일연 성사는 <삼국유사>에서 국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모시고 자주적 민족사관을 정립함으로써 한민족이 독자적 문화를 발전 계승시켜온 위대한 단일민족임을 증명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삼국유사>를 지침서로 읽고 음미하면서 단일민족으로 평화통일 민족대화합을 이뤄 잡사는 나라를 만들고, 아름다운 강산은

가진 존경받는 문화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연 스님 탄생지인 경산시 자인면 제정 숲 특설무대에서 열린 일연 선사 탄생기념음악회에는 설운도, 남궁옥분, 정태춘 등 인기 가수 공연과 퓨전밴드 연주, 민요와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삼국유사대제전'은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라는 주제로 일연 스님 열반일인 8월 1일까지 27일간 다채로운 학술, 문화, 공연 행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가하는 일연삼국유사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삼국유사대제전 전야제와 개막식, 주제공연 등이 인각사 경내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또,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는 대구독립영화협회 주관으로 불교와 관련된 우수 단편영화들도 상영된다. 29일에는 이희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일연문화상과 청소년 문화상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그러나 8월 1일 일연 스님 추모 다례제에 맞춰 복원 불안하려던 보각국사비는 다소 시일이 걸려 오는 11월 경 군위군이 계획하고 있는 탄신 800돌 기념 전국학파마라톤대회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상인 스님은 "삼국유사대제전은 종교를 떠나 모든 국민이 일연 성사의 <삼국유사>를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문화축제로 기획했다"며,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축제로서 중심축을 이루는 문화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멋진 화음' 어디든 달려간다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7월 3일 밤, 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 있는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 사무실. 꽤 늦은 시간인데 불이 밝혀져 있다. 문밖으로 새어나오는 찬불가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대구 경북지역 전문성악인 불자들로 구성된 중창단,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Potala Solist Ensemble)의 연습시간이다.

박수진(31)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습중인 중창단원은 모두 8명. 대표 겸 트레이너 정무시(43)씨를 비롯 해 테너 허철영(40) 박준홍(40)씨, 바리톤 권준대(37), 유원연(37)씨, 소프라노 김태란(45), 진소운

탈라솔리스트 앙상블은 종교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중창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음악인 90% 이상이 개신교. 가톨릭 신자인 음악계의 특성상 화성적 절 성가곡을 많이 불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교회에도 다닌 경험이 있다.

뒤늦게 불교계가 음성포교에 뛰어들었지만 불교음악은 여전히 음악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은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불교음악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자면 노력이 몇 배가 돼야 한다. 단원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2시간의 연습 뒤에는 밤이 늦도록 이런 고민들을 주고받으며 해결책



대구 경북지역 전문 성악인 불자들로 구성된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

불교합창단 초석 다진 성악인들 '한 호흡' 타종교 부러움 사기도, 산사음악회 계획

(35), 조장은(28)씨다. 이들은 모두 지역의 쟁쟁한 전문성악인이다.

정무시씨는 대구시립합창단 수석 테너, 유원연씨는 마산시립합창단원이다. 허철영씨는 몇해 전 인도 뉴델리 국립합창단 지휘자였다.

게다가 모두 지역의 불교합창단을 지휘 지도하고 있는 신심 돈독한 불자들. 정무시씨는 대성사, 진소운씨는 원만사, 권준대씨는 영남불교대학 지휘자다. 모두 지역불교계가 음성포교에 눈을 돌리며 합창단을 창단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지역합창단을 맡아왔으니 현 지역 불교합창단의 초석을 다진 이들이다.

포탈라솔리스트 앙상블은 지난 1월 부처님의 불을전파에 원력을 세우고 한 국불교음악의 초석이 되기 위해 결성됐다. 3년 전 일회성 행사를 위해 보리수 중창단을 결성해 잠깐 활동한 적이 있는데, 모두 그때의 싱그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마음을 다시 모으게 됐다. 포탈라란 티베트어로 관음의 성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란 뜻으로, 포

모색에 나선다. 각자 일이 바쁘니 매일 만날 수는 없고, 집에서 곡을 연습하고 의뢰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 완성된 음악을 만들자고 결론내렸다.

"우리로 부처님같이"를 작곡한 이달철(53,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장)단장도 기획을 맡고 있는 강주현(40)사무국장도 또 조른다. 좋은 찬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존의 찬불가를 3부 중창곡으로 편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걸음마를 떼어놓았으니 갈 길이 험하지만 약보도 볼 줄 모르는 불자 합창단을 여는 성가대 못지않게 키운 이들이기에 기대가 크다.

이달철 단장은 "기왕 있고 개성이 강한 솔리스트들이 모이거라 쉽지 않은데, 10명에 가까운 전문성악인이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흐트렷했다.

배지선 기자

신임 주지 도산 스님 진산식 대구 천태종 대성사



대구 천태종 대성사 신임주지 도산 스님(사진)의 진산식이 7월 1일 서원당 3층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사북 달성사 주지 덕수 스님을 비롯해 전 대성사 보광 스님과 신도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도산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도산 스님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한 불자로 거듭나는 일 이어달로 불사중의 불사이자 자명명 범등명"이라며 "역대 주지스님들이 힘써왔던 수행과 교육에 역점을 두어 본종의 종지구

현은 물론 수행가풍 진작과 교육, 포교 프로그램을 더욱 열심히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71년 입산 득도했으며, 총무원 사회국장, 규정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13대종의회부부장이자 강릉 삼개사, 육계 개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대광맹인복지회와 저력공양 대구 마하사 봉사단

대구 마하사 주지 재원 스님과 봉사단 십여 명이 6월 30일 대광맹인복지회 법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기법회에 참석 한 70여 명의 맹인 불자들을 위한 저력공양을 준비하고 맹인복지회들의 눈이 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같은 불자로서 코드가 꼭 맞는 듯 마하사 봉사단원들은 맹인복지회원들과 금세 하나가 되어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마하사 봉사단원들은 "많은 맹인복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같은 불자로서 함께 더불어 가려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원 스님도 "작은 힘이 모이면 크다"며 "지역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기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맹인복지회 이경림 사무장은 "장애를 가진 불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생활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불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마하사 주지 재원스님과 봉사단원들의 방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단기출가학교 개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지 우해)가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의 제4기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대상은 45세미만의 미혼남성으로 하며 선착순 20명만 접수받는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입학식은 오후3시 대웅전 4층 법당에서 열린다. 법문 및 수계식, 입교자발원, 사찰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문자는 21일 간 대구와 김포 도량에서 생활하게 된다. 엄격한 규칙으로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을 하며 발우공양은 물론이고 간경, 장근, 참선, 사경, 요가, 자비수할, 목탁 습의 및 법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위한 치과순회진료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보건소 치과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구강관리라 미흡한 장애인들에게 구강진단을 통해 올바른 관리대안을 제시하고, 스케일링을 통해 충치예방과 구강청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7월 12일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며, 13일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14일은 재가 장애인 및 지역 거주 장애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54)633-6415 배지선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3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개강안내 7월 19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수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프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상담학 박사 이재형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치명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지음학회 회장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다수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강의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영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